

『문화어학습』으로 본 북한의 문법 교육

최영란¹⁾

<次例>

- I. 서론
- II. 북한 학교 문법의 배경
- III. 『문화어학습』으로 본 북한 문법 교육의 실제
- IV.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북한의 『문화어학습』¹⁾에 게재된 국어 교육 및 문법 교육 관련 논문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문법 교육 실태, 문법 교수 학습 방법의 문제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문법 분야에 대한 남한에서의 연구는 문법 체계, 철자법, 말 다듬기와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 거쳐 상당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문법 연구를 문법 교육과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것은 많지 않으며 기존의 북한의 문법 교육 연구가 남북한의 교과서

*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한국국제교류재단 2010년 체한 연구 펠로.

1) 1968년에 창간된 국어학습지이다. 고영근 외(2004: 184)에 의하면 이 책은 1997년 4호 까지 간행하다가 1998년부터 『조선어문』과 『문화어학습』을 통합하여 전자를 『조선어문』과 『문화어학습』으로 구분·편찬하였고(1999년까지), 2000년부터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2001년부터는 『문화어학습』을 복간했다고 한다.

분석을 통한 문법 교육 내용 비교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국어 교육 및 문법 교육 관련 논문을 시대별로 분석하여 그 양상을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존의 교과서 분석 위주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했다는 점, 북한의 『문화어학습』을 1차 자료로 거기에 게재된 내용 중 문법 교육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살펴 수 있는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란의 논문 자료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논문의 내용적인 측면과 함께 교수 학습 방법적인 측면까지 살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어 교육은 공산주의 혁명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교육의 목적 아래 존재하며 이러한 전제에 따라, 국어 교육관과 교수법, 교육 정책, 교과 내용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국어 교육 내용 요소의 하나인 문법 교육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타 영역에 비하여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다. 아래 분석하게 될 『문화어학습』의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에 실려 있는 논문 자료들에서도 이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논문의 서두는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교시로 시작되지만 내용적인 측면은 다분히 지식적인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II. 북한 학교 문법의 배경

1. 북한의 어문정책

북한언어연구회 편(1989: 26)에 의하면 북한의 어문 정책은 중앙 정부가 어문 정책의 기본 방향을 명시하고 이를 구속력을 가지고 통제하여 시

행하는 방식을 지닌다. 북한에서는 1960년 이전까지는 주시경, 김두봉과 조선어학회의 업적과 소련의 언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지만 그 이후에는 김일성의 항일 독립 투쟁 때의 언어 규범화 분야에서 이룩한 혁명전통을 철저히 계승, 발전시키고 사대주의를 극복하여 주체성을 지키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즐겨 쓰는 말에 기초하여 언어정책을 수립하였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어문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문맹퇴치

문맹퇴치 사업은 해방 후 북한이 가장 먼저 벌인 전국민적 언어운동이다. 『문화어학습』(1971년 3호: 9-12)에 따르면 당시 북한에는 전체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30여만 명이 문맹자로 남아 있었다. 김일성은 혁명과 건설을 골자로 하는 정치 생활에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맹 퇴치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1945년부터 성인학교를 세워 근로자들이 글자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여 1947년 말경에는 문맹자의 절반 이상을 퇴치하였으며 1949년 3월에는 ‘문맹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② 한자폐지

김민수(1993: 79)에 의하면 1949년 9월 북한에서는 한자폐지를 단행한다. 그러나 1964년 1월 3일 김일성 담화에 의하면 한자가 배우기 힘들고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 통일 문제와 연관시킬 때 동질성 차원에서 일정한 시기까지 써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통일 문제와 관련시켜 한자 교육이 부활했음을 알 수 있다.²⁾

③ 말다듬기

말다듬기는 한자폐지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쉽고 분명하고 또 간결하게 말을 하고 글을 쓰자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1964년의 김일성 담화 발표 이후, 체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³⁾

④ 문화어운동

북한에서 문화어에 대한 언급은 1966년 5월 14일 김일성 담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문화어운동은 한자어와 외래어의 정리, 방언에서 좋을 말을 찾아내어 문화어로 사용하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언어운동으로서 일종의 어학 혁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에 김일성은 언어학자들과 두 차례 담화를 진행하고 언어와 관련된 교시를 내린다. 언어와 관련된 두 교시가 내려진 이후, 북한은 문화어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교양할 것인가의 구체적 방도를 고민한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 따라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주체적으로 발전시키자」(『문화어학습』 1969년 2호: 1-4)는 문화어 보급의 원칙과 방도에 대해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우리 말 문화어를 깊이 학습하고 가꾸며 문화어와 대치되는 온갖 낡은 언어의식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

2) 고영근(1994: 42)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초·중학교에서 기술학교까지 2,000자, 대학에서는 1,000자, 모두 3,000자로 남한보다 1,200자나 많은 한자를 교육용 한자로 사정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3) 김일성의 1964년 1월 3일 담화는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말다듬기에 있어서 한자와 외래어에 대하여 우리의 고유어로 말다듬기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우리말을 정리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우리말을 알기 쉽고 로동 계급의 사상 감정에 맞는 혁명적인 말로 다듬으며 고유조선 말에 철저히 토대하여 새말을 만들 것.

셋째, 글자개혁을 위한 연구 사업을 과학 이론적 토대 위에서 심화할 것-문자개혁을 위한 준비를 갖출 것.

넷째, 고장 이름과 사람 이름을 짓는데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며 고전 을 훌륭한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업 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 것.

이상 네 가지 방도 중 첫째, 둘째, 셋째 항목은 국어 교육적 차원에서 문화어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 국어 교육의 성격

국어 교육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국어 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이르는 국어 교육의 설계와 실천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김일성의 언어 사상과 문예 사상에 기반을 두고 국어 교육의 성격을 규정해오고 있다. 즉 국어 교육이 김일성의 혁명 사상 등을 전수하는 정치사상 교육을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관점이 현재까지도 일관성있게 유지되고 있다. 김일성이 사회주의 언어관에 따라 말과 글의 혁명적 도구관을 천명한 1960년대에는 말과 글을 혁명의 무기가 되게 다듬는 국어 교육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에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다듬은 문화어 보급을 국어 교육의 중요한 사명으로 강조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전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어 교육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주제2사범대학 외(1973: 13)에 의하면 북한은 국어 교육의 문제를 민족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 이는 언어의 사회적 본질에 관한 김일성의 사상과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즉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이자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의 하나로 보는 언어관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북한은 국어 교육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며, 어문학에 대한 소양을 증진시켜 새 인간을 양성'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어교수법』(1973: 48)에서는 북한에서 국어 과목이 담당해야 할 지식의 체계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말과 글의 일반지식과 기능을 형성시킴으로써 당의 정책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하며 과학과 기술,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습득 할 수 있는 언어적 지식을 닦아주는 것이다.

둘째, 문학예술에 대한 일반지식과 기초기능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생활의 필수적 요구의 하나인 문화생활에 적극 참가할 수 있게 하며 전문적인 문학예술작품창작의 토대를 닦아주는데 있다.

셋째, 학생들의 정신생활을 풍부히 하고 생활지식을 넓히며 현실분석의 기초능력을 형성시킴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확고히 의거하여 생활과 투쟁을 자각적으로, 창조적으로 조직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준다.

최현섭 · 이인제 · 최영환(1996)과 윤희원 · 박갑수 · 박영복 외(1997)의 연구에서는 북한 국어 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국어 교육의 성격과 목표에서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언어에 대한 사상과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구하는 국어 교육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을 김일성과 김정일에 충성을 바치는 공산주의적 혁명 전사로 키우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 국어 교

육의 목표는 '김일성의 혁명 사상과 주체사상과 주체적 언어 문예 사상 그리고 김정일의 언어 문예 이론 체득, 문학 작품의 자립적 분석 능력 신장, 말과 글을 다루는 창조적 능력 신장' 따위에 두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주체적 문예 사상과 문예 이론 체득이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

둘째, 북한에서는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국어 지식과 기능, 문학 지식과 기능, 정서와 사고력 신장' 등을 들고 있는데, 지식은 '당의 의도와 정책, 사회주의 문화에 관한 지식'으로 기능은 '혁명적 실천'에 사용하는 기능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국어 교육의 방법으로 문답과 해설, 직관, 토론과 논쟁, 연습 등을 교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 교수 방법으로 '깨우쳐 주는 교수법, 감화적 교수법, 원문 통달식 교수법'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어 교육의 성격에 근거하여 국어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문법 교육의 성격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북한 문법 교육의 배경으로 언어 정책 및 국어 교육의 성격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에서는 북한 문법 교육의 실제와 관련하여 『문화어학습』의 '학교에서의 조선어교육'에 게재되고 있는 국어 교육 및 문법 교육 관련 논문들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III. 『문화어학습』으로 본 북한 문법 교육의 실제

1. 『문화어학습』의 창간

김일성은 1966년 5월 14일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에서 우리말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두 번째 담화를 발표하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

의 수도인 평양말 중심의 표준어를 ‘문화어’⁴⁾라 부를 것을 제창하며 민족적인 특성이 반영된 언어로 발전시킬 것을 교시한다.

(1)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지로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하여 하여 발전시킨 우리 말을 『문화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것이 좋습니다. 『문화어』라는 말도 그리 좋은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 것이 낫습니다. (『문화어학습』 1968년 3호 1-9)

이러한 교시가 실천에 옮겨진 것이 1968년에 창간된 『문화어학습』이다. 고영근 외(2004: 184)에 의하면 이 책은 1997년 4호까지 간행하다가 1998년부터 『조선어문』과 『문화어학습』을 통합하되 전자를 『조선어문』과 『문화어학습』으로 구분·편찬하였고(1999년까지), 2000년부터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2001년부터는 『문화어학습』을 복간했다고 한다.

북한은 『문화어학습』의 창간을 통해 교육적 차원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법 및 문법 교육과 관련하여 『문화어학습』에는 다음과 같은 강령들이 실려 있다.

4)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조선말대사전, 1992: 1186)

- (4) 우리 말은 문법구조도 째였습니다. 문법구조가 째였다는 것은 언어가 그만큼 발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조선말은 토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치밀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어휘가 풍부하고 문법이 째여져있기 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는 어떤 사상적내용이나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1961년 5월 25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문화어학습』 1994년 2호, 3-6)
- (5) 심화 발전하는 우리의 현실은 더 풍부하고 섬세한 표현들, 더 치밀하고 째인 문법구조, 보다 다양한 문체의 글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를 옳게 학생들에 대한 국어문법교수가 문학교수와 결부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그들의 읽기, 말하기, 글씨쓰기, 글짓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데로 더욱더 지향되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문화어학습』 1980년 3호: 4)

(4)에서는 우리말의 문법구조의 치밀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풍부하고 다양한 토 및 어휘를 가지고 있는 우리말로는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령(5)은 문법 교육의 실용화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법 교육이 학생들의 말하기, 글씨쓰기, 글짓기 등 표현 능력과 긴밀히 결부됨으로써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실천능력을 키워주는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북한의 문법 교육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2.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국어 교육 및 문법 교육 관련 논문

『문화어학습』은 대체로 '사설', '강령', '어학 혁명 앞으로', '문화예술과 우리 생활', '훌륭한 문제작을 더 많이 쓰자', '학교에서의 조선어교육⁵⁾', '표현이 풍부한 우리 말', '우리 생활과 언어', '언어지식' 등 고정란으로 구

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학교에서의 조선어교육'은 거의 매 호마다 등장하는 중요한 란으로 각급 교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쌓은 교수 학습 경험과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1972년 이전에는 산발적으로 국어 교수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1972년경부터는 '학교에서의 조선어교육'이라는 고정란을 중심으로 교수법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논의는 1964년과 1966년의 언어 관련 교시에 드러난 김일성의 국어 교육 사상에 입각하여 교수 원칙, 내용,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문화어학습』의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란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국어 교육 양상 및 문법 교육 양상을 교과서가 아닌 다른 측면으로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우선 현재까지 출판된 『문화어학습』의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란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시대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70년대⁶⁾

1972년부터 『문화어학습』에 '학교에서의 조선어교육'란이 등장하고 1976년부터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라는 고정 이름으로 연재되지만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70년대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국어 교육 관련 논문 자료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서 필자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이 시기 『문화어학습』의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란에는 총 13편의 국어교육 관련 논문 자료가 게재되는데 그 중에서 문법교육 관련 논문이 7편(53.8%), 기능교육 관련 논문이 4편(30.8%) 기타 논문이 2편(15.4%)을 차

5) 1976년부터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연재한다.

6) 1970년 2호, 3호, 4호, 1971년 2호, 1979년 1호, 2호, 3호, 4호

지한다. 논문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 시기 북한의 국어 교육 양상 및 문법 교육 양상이 어떠했다고 짐작하기는 어려우나 문법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온 것은 김양희(2002)에서 70년대 북한의 국어 교육을 문화어 보급과 혁명적 국어 교육 사상이 고취된 시기로 요약하면서 이 시기 학교에서의 문법 교육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문화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급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한 것과 같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교시⁷⁾에 근거하여 글씨쓰기 교육을 시종일관 국어교육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삼고 저학년에 특별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글씨쓰기 교육을 문법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본 논의에서는 일단 규범 교육의 일환으로 문법 교육의 영역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표 1〉 70년대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국어 교육 관련 논문

| 순서 | 제 목 | 저자 | 영 역 |
|----|------------------------------------------|-----|-----|
| 1 | · 우리는 인민학교 낮은 학년 국어교수에서의 당정책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 | 전명옥 | 기타 |
| 2 | · 읽기에서의 발음지도 | 리달선 | 발음 |
| 3 | · 졸업론문을 어떻게 쓸것인가 | 리동빈 | 쓰기 |
| 4 | · 작문쓰기를 실속있게 지도하자 | 천재규 | 쓰기 |
| 5 | ·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통한 어휘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리준무 | 어휘 |
| 6 | · 학생들의 화술을 높이는것은 언어교육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 | 남영희 | 말하기 |

7) 지금의 우리 글자는 네모난 글자이기 때문에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우리 글자는 주로 음을 표준으로 삼았으므로 발음하기는 좋지만 단어형태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이 보기가 좀 어렵고 쓸 때에 조금만 획을 달리 써도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어학습 1979년 3호)

| | | | |
|----|----------------------------------------|-----|------|
| 7 | · 배운 단어를 생활속에서 써먹을수 있도록 창조적힘을 키워주어야 한다 | 리준무 | 어휘 |
| 8 | · 작문쓰기를 실속있게 지도하자 | 천재규 | 쓰기 |
| 9 | · 글씨쓰기지도를 위한 기초지식 | 장명옥 | 글씨쓰기 |
| 10 | ·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사는 교육자 | 기자 | 기타 |
| 11 | · 글씨쓰기의 기본내용과 그 지도 | 장명옥 | 글씨쓰기 |
| 12 | · 어휘의 뜻을 원리적으로 가르치려면 | 석문광 | 어휘 |
| 13 | · 고유어를 더 많이, 더 잘 가르치자 | 신원희 | 어휘 |

2) 80년대(1980년-1989년)

이 시기 『문화어학습』의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에는 총 123편의 국어 교육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는데 문법교육 관련 논문 67편(54.5%), 기능교육 관련 논문 31편(25.2%), 교수법 관련 논문 4편(3.3%), 교사교육 관련 논문 4편(3.3%), 외국어교육 관련 논문 2편(1.6%), 문학 관련 논문 2편(1.6%), 기타 논문이 13편(10.5%)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 졌는지와 영역별 비중은 아래의 <표 2>와 <그림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2> 80년대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국어교육 관련 논문

| 순서 | 제 목 | 저 자 | 영 역 |
|----|-------------------------------|-----|--------|
| 1 | · 학생들의 화술을 책임진 립장에서 | 리춘단 | 말하기 |
| 2 | · 말뜻을 캐들어가는 방법으로 | 정광연 | 어휘 |
| 3 | ·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어휘를 가르치기 위하여 | 정남숙 | 어휘 |
| 4 | · 국어교수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 최해룡 | 교수법 |
| 5 | · 국어 련습과 실습 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 | 리광섭 | 교수법 |
| 6 | · 회화를 기본으로 하는 외국어교육방법 | 박재원 | 외국어 교육 |
| 7 | · 고등중학교에서 어휘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류명은 | 어휘 |
| 8 | · 글씨쓰기에서의 기본획긋기지도 | 강덕영 | 글씨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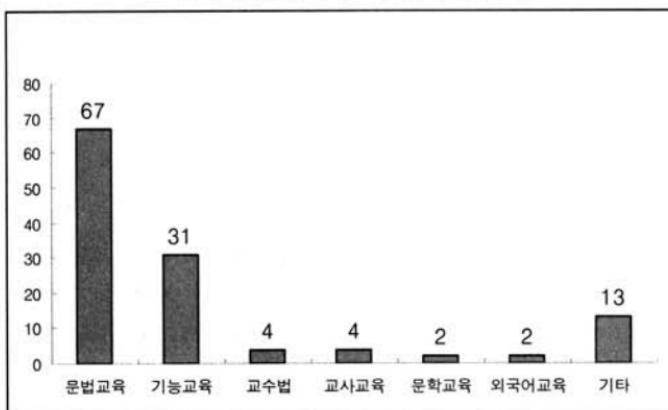
| | | | |
|----|--------------------------------------|-----|------|
| 9 | · 학생들이 글씨를 똑바로 쓰도록 | 강덕영 | 글씨쓰기 |
| 10 | · 문답을 통하여 말하는 방법을 배워준다 | 백종익 | 말하기 |
| 11 | · 인민학교 발음교육에서 쓰이는 교편물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 | 기태춘 | 발음 |
| 12 | · 학교에서 문화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 류명은 | 기타 |
| 13 | · 은을 내는 보이기수업 | 기태춘 | 보이기 |
| 14 | · 문학교수에서의 문화어 교육 | 오병세 | 문학 |
| 15 | · 입말과 발음 | 최준영 | 발음 |
| 16 | · 글쓰기 실천능력을 키워주는 생동한 수업 | 류명은 | 쓰기 |
| 17 | ·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자라난 뛰여난 수재 | 김학렬 | 기타 |
| 18 | · 교장이 쓴 150여권의 글씨쓰기 련습장 | 김상현 | 글씨쓰기 |
| 19 | · 짧은글짓기지도에 힘을 넣어 | 최길순 | 쓰기 |
| 20 | · 어휘교육을 단수가 높게 | 김정국 | 어휘 |
| 21 | · 모든 학생들이 글쓰는 보람을 직접 느껴보도록 | 최중영 | 쓰기 |
| 22 | · 학생들의 문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 백춘범 | 문장 |
| 23 | · 학교들에서 글짓기경연을 짜고들어 조직하고 지도하자 | 편집부 | 쓰기 |
| 24 | · 학생들의 문장력을 빨리 키워주는 방법 몇가지 | 강상호 | 문장 |
| 25 | · 어교원수첩을 만들어 교원들의 자질을 높인다 | 승백학 | 교사교육 |
| 26 | · 문장짜기에 대한 지도 | 림호군 | 문학 |
| 27 | ·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 | 기자 | 기타 |
| 28 | · 어버이수령님께서 꽂펴워주신 이름을 통한 우리 말 교양 | 배정숙 | 기타 |
| 29 | · 학생들이 말과 친숙해지도록 | 강영숙 | 말하기 |
| 30 | · 문화어교육에서 단일문의 갈래와 기능을 옳게 가르치기 위하여 | 권영률 | 문장 |
| 31 | · 고등중학교시기에 우리 말 문법의 기초를 닦아주어야 한다 | 안옥규 | 문법 |
| 32 | · 인민학교에서 얼마만한 어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 기태춘 | 어휘 |
| 33 | · 교원은 학생들의 글짓기를 이렇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 지운세 | 쓰기 |
| 34 | · 교원들의 우리 말에 대한 자질을 높여 | 김순음 | 교사교육 |
| 35 | · 단어 첫소리의 발음지도 | 홍윤표 | 발음 |
| 36 | · 교원의 화술과 억양 | 김상오 | 교사교육 |

| | | | |
|----|-----------------------------------|-----|--------|
| 37 | · 한마디의 말투도 놓치지 않고 | 정천상 | 기타 |
| 38 | · 학생들의 발표력을 키워주기 위한 지름길 | 채재옥 | 말하기 |
| 39 | · 어휘표현수첩이 은을 내도록 | 지윤세 | 어휘 |
| 40 | · 숨은 노력가 | 기자 | 기타 |
| 41 | · 입말문장짜기에 대한 지도 | 림호군 | 문장 |
| 42 | · 받침소리의 발음지도 | 김윤교 | 발음 |
| 43 | · 단어발음지도와 관련한 걸그림 | 김덕조 | 발음 |
| 44 | · 편지쓰는 법부터 가르친다 | 김순택 | 쓰기 |
| 45 | · 문장에서 이음술어와 맷음술어의 어울림을 바로하도록 | 리승구 | 문장 |
| 46 | · 여러 가지 글을 쓸줄 알도록 | 박강윤 | 쓰기 |
| 47 | · 억양에 대한 지도는 문장속에서 하여야 한다 | 림호군 | 발음 |
| 48 | · 구조적제약을 받는 단어결합을 잘 가르치자 | 우정옥 | 단어 |
| 49 | · 단어구조풀이 | 김덕조 | 단어 |
| 50 | · 문법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 안옥규 | 문법 |
| 51 | · 그릇된 소리닮기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 강덕영 | 발음 |
| 52 | · 토가르치기 | 김덕조 | 단어 |
| 53 | ·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찰하는 충성의 한길에서 | 김수복 | 기타 |
| 54 | · 나날이 높아가는 학생들의 글쓰기능력 | 안광호 | 쓰기 |
| 55 | · 규정토를 올바로 쓰도록 가르치려면 | 최영호 | 단어 |
| 56 | · 서예교육의 풍만한 열매 | 김명희 | 글씨쓰기 |
| 57 | · 그날의 영광을 빛내여나가는 길에서 | 리봉활 | 기타 |
| 58 | · 관찰을 통하여 글쓰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것인가? | 현성일 | 쓰기 |
| 59 | · 각이한 문장을 짓는 법을 가르친다 | 김형립 | 쓰기 |
| 60 | · 감상문쓰기지도를 이렇게 하였다 | 현성일 | 쓰기 |
| 61 | ·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잘 가르쳐야 한다 | 리형태 | 단어 |
| 62 | · 품사를 옳게 분석하도록 지도하려면 | 정만복 | 단어 |
| 63 | · 청년학생들속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운동을 적극 벌려나 가자 | 박재원 | 외국어 교육 |
| 64 | · 한문교수를 통하여 단어의 뜻을 정확히 가르치려면 | 길경종 | 단어 |
| 65 | · 섞갈리기 쉬운 토를 잘 가르치자 | 고명희 | 단어 |
| 66 | · 유치원에서 기초어휘교육에 힘을 넣어야 한다 | 리성희 | 어휘 |

| | | | |
|----|----------------------------------|-----|------|
| 67 | · 미래의 창작자들의 재능을 이렇게 키워주었다 | 김운걸 | 쓰기 |
| 68 | · 인민학교에서 단어의 뜻을 쉽게 가르치려면 | 홍윤표 | 단어 |
| 69 | · 이야기글쓰기지도를 이렇게 하였다 | 현성일 | 쓰기 |
| 70 | · 학교도서관과 우리 말 학습 | 기자 | 쓰기 |
| 71 | · 국어교수를 문장력을 키워주는데 모를 박으려면 | 김형렬 | 문장 |
| 72 | · 학생들이 묘사력을 키워주려면 | 리수향 | 쓰기 |
| 73 | · 글쓰기지도에서 집필요강을 잘 만들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 문재홍 | 쓰기 |
| 74 | · 단위명사를 정확히 쓰도록 이끌어주자 | 윤재환 | 단어 |
| 75 | · 벽보발간을 통하여 학생들의 글쓰는 힘들 키워나간다 | 조룡수 | 쓰기 |
| 76 | · 어휘학습을 이렇게 하여야 한다 | 윤성옥 | 어휘 |
| 77 | · 유치원에 놀이를 통하여 우리말을 가르친다 | 리복필 | 교수법 |
| 78 | · 단어결합의 원리를 알고 문장을 짜게 하자 | 오도원 | 단어 |
| 79 | · 기행문쓰기와 지도방법 | 현성일 | 쓰기 |
| 80 | · 음을 내는 어휘수업 | 심인현 | 어휘 |
| 81 | · 일기는 글쓰기재능을 꽂펴주는 좋은 수단 | 김평신 | 쓰기 |
| 82 | · 문장다듬기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 점 | 김락삼 | 문장 |
| 83 | · 런습을 통해 학생들이 토를 옮겨 분석하도록 | 정만복 | 단어 |
| 84 | · 이어내기와 끊어내기의 발음지도 | 김룡남 | 발음 |
| 85 | · 우리 말 수사를 정확히 쓰도록 이끌어주자 | 윤재환 | 단어 |
| 86 | · 유치원어린들에게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를 잘 가르치려면 | 성순옥 | 어휘 |
| 87 | · 교원의 말은 학생들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 심인현 | 교사교육 |
| 88 | · 글짓기지도에서 대안을 잘 주는것이 중요하다 | 문재홍 | 쓰기 |
| 89 | · 속담도 이야기할줄 알도록 | 곽순향 | 어휘 |
| 90 | · 수수께끼풀이를 통한 말하기교육 | | 말하기 |
| 91 | · 놀이를 통한 언어례절교육 | | 교수법 |
| 92 | · 문장성분가르치기 | 김덕조 | 문장 |
| 93 | · 학생들의 어휘표현능력은 이끌어줄 탓 | 김평신 | 어휘 |
| 94 | · 감상문은 글쓰는 묘리를 체득시키는 좋은 글형태 | 차운숙 | 쓰기 |
| 95 | · 맞춤법지도를 원리적으로 | 최채숙 | 규범 |

| | | | |
|-----|------------------------------------------|-----|-----|
| 96 | · 물은 트는대로 흐르기 마련이다 | 심인현 | 기타 |
| 97 | · 품사지식을 바로 가지자 | 최진호 | 단어 |
| 98 | · 맞춤법을 바로 <u>쓰도록</u> | 윤순임 | 규범 |
| 99 | · 국어교수에서 성구를 잘 가르치기 위한 방도 | 김현옥 | 어휘 |
| 100 | · 토의 겹침현상을 똑바로 인식하도록 하려면 | 한정길 | 단어 |
| 101 | · 문답을 통한 말하기지도방법 | 림명진 | 말하기 |
| 102 | · 일기쓰기지도에서 중요한것은 일기의 특성에 맞는 글감을 찾아주는것이다 | 현성일 | 쓰기 |
| 103 | · 첫시작부터 짜고들어 | 기자 | 기타 |
| 104 | · 말재간 문제가 아니였다 | 김광홍 | 말하기 |
| 105 | · 국어교육을 모국어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는데 모를 박고 | 현순랑 | 기타 |
| 106 | · 문법의 정의, 규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안옥규 | 문법 |
| 107 | · 체언형 품사 교육에서 깨우쳐주어야 할 몇가지 | 최진호 | 단어 |
| 108 | · 평범한 생활속에서 의의있는 글감을 찾아쓸줄 알도록 | 기정심 | 쓰기 |
| 109 | · 학생들의 문장표현능력을 이렇게 이끌어주었다 | 김평신 | 문장 |
| 110 | · 유치원 어린이들속에서 감정정서적 뜻빛갈을 가진 어휘지도에 낯을 돌리자 | 성순옥 | 어휘 |
| 111 | · 발음지도에서 모를 박아야 할 점 몇가지 | 림룡남 | 발음 |
| 112 | · 날과 달의 발음과 지도 | 홍윤표 | 발음 |
| 113 | · 문장짜는데서 주어를 잘 설정하도록 하려면 | 강애옥 | 문장 |
| 114 | · 듣기지도를 말하기지도에 앞세워야 한다 | 림명진 | 말하기 |
| 115 | · 우리 글자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도록 이끌어주자 | 윤재환 | 기타 |
| 116 | · 언어례절이 밝은 학생들로 키운다 | 기자 | 기타 |
| 117 | · 목격형 토를 바로 쓰도록 지도하려면 | 안홍길 | 단어 |
| 118 | · 토에 대한 학습은 문법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디딤돌 | 안옥규 | 단어 |
| 119 | · 물음법으로 문장성분의 갈래에 대하여 익혀준 수업 | 류명은 | 문장 |
| 120 | · 형상적 표현을 통하여 어휘표현능력을 키워준다 | 림종철 | 어휘 |
| 121 | · 뜻같은말에 대한 지도를 잘하려면 | 성순옥 | 어휘 |
| 122 | · 토를 바로 쓰도록 하려면 | 리중녀 | 단어 |
| 123 | · 점충법을 어떻게 가르칠것인가? | 림룡남 | 문장 |

<그림 1> 80년대 국어교육 영역별 논문수



김양희(2002)에서는 80년대 북한의 언어문제의 성격을 '어학혁명'으로 요약하면서 1980년대 북한의 국어 교육에서 문법 과목 교수를 특별히 강조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민학교에서 시행해야 할 국어 문법 교수는 글자 가르치기, 글 교재를 다루는 작업을 통해 초보적인 언어지식을 실천적으로 습득할 것을 강조하며, 중학교에서는 국어문법의 기초지식에 토대하여 읽기, 글쓰기로 활용하고 심화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언어지식을 가르칠 것을 제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법교육의 강조는 당대 북한의 어학 혁명에 있어서 문화어의 보급과 안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문화어 학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어 교육 강화와 관련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 (6) 온 사회에 문화어를 쓰는 혁명적기풍이 차 넘치게 하는데서 첫째로 중요한 문제는 문화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략) 문화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온 사회에 문화어를 쓰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는데 선차

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온 사회에 문화어를 쓰는 혁명적기풍이 차넘기게 하자』, 『문화어학습』 1981년 4호: 4)

(7) 문화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언어생활에서 문화어를 쓰는 기풍을 세우기 위한 선결조건이다.(중략) 사범대학들에서 문화어교육을 잘 하여야 거기서 양성된 교원들이 우리 말 교수교양사업을 잘할 수 있다. (중략) 다음으로 문화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각급 교육기관들, 특히 보통교육기관들에서 문화어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중략)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문화어교육을 강화하는 데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자, 편집원들을 비롯한 글을 많이 쓰는 일군들로부터 문화어를 올바로 쓰는 것이다.(『온 사회에 문화어를 쓰는 혁명적기풍이 차넘기게 하자』, 『문화어학습』 1981년 4호: 4)

3) 90년대(1990년~1997년)

이 시기 『문화어학습』의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에는 총 96년의 국어교육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데 문법교육 관련 59편(61.5%), 기능교육 관련 논문 15편(15.6%), 교수법 관련 논문 6편(6.3%), 교사교육 관련 논문 1편(1.0%), 문학교육 관련 논문 2편(2.1%), 기타 논문이 13편(13.5%)을 차지한다.

〈표 3〉 90년대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국어교육 관련 논문

| 순서 | 제 목 | 저 자 | 영 역 |
|----|--------------------------|-----|-----|
| 1 | · 나는 학생들의 글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 | 안선일 | 쓰기 |
| 2 | · 어휘교육에 힘을 넣어 | 최순영 | 어휘 |
| 3 | · 교원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 김영은 | 기타 |
| 4 | · 들받침《ㄹ》을 바로 쓰도록 하려면 | 한정길 | 규범 |
| 5 | · 글말교육을 나이심리적특성에 맞게 | 홍윤표 | 교수법 |
| 6 | · 어휘표현작업은 글쓰기의 첫걸음 | 김평신 | 어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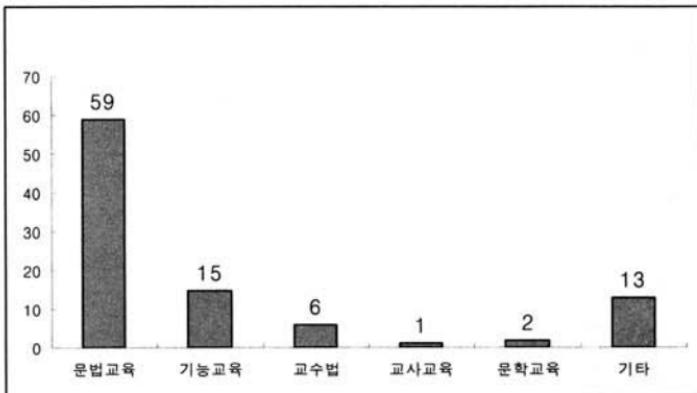
| | | | |
|----|----------------------------------|------|-----|
| 7 | · 가갸표는 우리 글자 학습을 위한 교과서 | 최능선 | 규범 |
| 8 | · 된소리발음에 대한 생각 | 림룡남 | 발음 |
| 9 | · 언어례절교양을 강화한다 | 최성훈 | 기타 |
| 10 | · 현대적직관수단과 우리 말 교육 | 림명진 | 교수법 |
| 11 | · 우리 말 토의 결합적특성을 잘 알고 바로 쓰도록 하려면 | 안홍길 | 단어 |
| 12 | · 고유어를 살려쓰는 기풍을 세우도록 | 강두성 | 어휘 |
| 13 | · 일기를 써우는 과정에 얻은 경험 | 안형국 | 쓰기 |
| 14 | · 술어를 기준으로 하는 맞물린 문장성분 가르치기방법 | 심상규 | 문장 |
| 15 | · 문장성분을 올바로 갈라내도록 하려면 | 한정길 | 문장 |
| 16 | · 한문교수과정을 통한 우리 말 교육 | 리덕선 | 어휘 |
| 17 | · 자그마한 빈틈에도 | 김혜숙 | 기타 |
| 18 | · 학생들에게 형상적표현력을 키워준다 | 임영준 | 쓰기 |
| 19 | · 소리빠지기와 관련한 발음현상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김용환 | 발음 |
| 20 | · 입천장소리되기와 관련한 발음지도 | 김윤교 | 발음 |
| 21 | · 한 단어를 열백가지로 써먹도록 | 최희숙 | 어휘 |
| 22 | · 학생들에게 동사, 형용사의 차이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자 | 장여애 | 단어 |
| 23 | · 주어도 문장구조를 제약한다 | 한경남 | 문장 |
| 24 | · 이런 방법도 좋다 | 조선옥 | 교수법 |
| 25 | · 말 한마디로 열마디, 백마디의 단어들을 가르친다 | 리원병 | 어휘 |
| 26 | · 입천장소리와 사투리적발음현상 | 리근용 | 발음 |
| 27 | · 유치원때에 좋을 말버릇을 붙이도록 | 김정희 | 말하기 |
| 28 | · 국어교육에 바치는 뜨거운 지성 | 본사기자 | 기타 |
| 29 | · 우리 말 형태부들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 리문수 | 단어 |
| 30 | · 총련유치반어린이들에 대한 우리 말 지도는 생활속에서 | 리련실 | 교수법 |
| 31 | · 토를 정확히 갈라내도록 하려면 | 김용환 | 단어 |
| 32 | · 단어조성수법을 어떻게 가르칠것인가 | 림용남 | 단어 |
| 33 | · 단어의 뜻 교육과 반대말 | 황병례 | 어휘 |
| 34 | · 맞춤법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 관순재 | 규범 |
| 35 | · 소중한 짹을 잘 키워줄 때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 최희숙 | 기타 |
| 36 | · 문장구조와 품사체계의 호상관관속에서 | 고동혁 | 문장 |

| | | | |
|----|-------------------------------------------|------|------|
| 37 | · 유년동요를 어떻게 지도할것인가 | 김운걸 | 문학 |
| 38 | · 인민학교 학생들의 감상문쓰기 지도와 입말 | 김동순 | 쓰기 |
| 39 | · 이음토《지만》의 뜻을 잘 가르치자 | 김옥희 | 단어 |
| 40 | · 귀영등이들의 속삼임소리 | 박옥 | 기타 |
| 41 | · 《깨밥》을 누가 지었나? | 김혜숙 | 기타 |
| 42 | · 읽기에서 문장의 통합을 구획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련습문제 | 김철호 | 읽기 |
| 43 | · 하나의 글을 놓고 | 김상녀 | 읽기 |
| 44 | · 매 순간마다 | 홍영호 | 기타 |
| 45 | · 날소리현상을 형성시키는 것은 우리 글자 교수의 중심내용 | 최능선 | 규범 |
| 46 | · 문장을 통한 우리 말 교육을 바로 하려면 | 한경남 | 문장 |
| 47 | · 문체론적 물음문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림룡남 | 문장 |
| 48 | · 대비법을 잘 자르치려면 | 우정옥 | 문장 |
| 49 | · 아동문학작품은 재미있게 쓰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전병두 | 쓰기 |
| 50 | · 한자쓰기 교수를 잘하자면 | 김금산 | 어휘 |
| 51 | · 가갸방법은 날소리표상을 형성시키는 방법 | 최능선 | 발음 |
| 52 | · 어린 학생들의 발음에 대한 지도방법 몇 가지 | 황규본 | 발음 |
| 53 | · 거센소리되기와 그 발음지도 | 조혜련 | 발음 |
| 54 | · 글씨교수교편물 몇 가지 | 리수향 | 글씨쓰기 |
| 55 | · 토련습지도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오도원 | 단어 |
| 56 | · 통합의 구성과 발음에 대하여 | 김철호 | 발음 |
| 57 | · 우리 말 된소리의 특성 | 김혜영 | 발음 |
| 58 | · 글짓기를 통하여 키워준 충성심 | 본사기자 | 기타 |
| 59 | · 말하기와 국어교육 | 고희천 | 말하기 |
| 60 | · 읽기와 쓰기가 다른 단어의 맞춤법 | 박재규 | 규범 |
| 61 | · 고유어덧붙이를 잘 알고 쓰자 | 엄응룡 | 어휘 |
| 62 | · 하나의 어휘를 알아도 똑바로 알도록 | 홍영호 | 어휘 |
| 63 | · 《인용어문장》의 구조적 특성과 그 지도 | 한경남 | 문장 |
| 64 | · 과장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림룡남 | 문장 |
| 65 | ·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의 명문장을 국어문학수업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 박준호 | 문학 |

| | | | |
|----|-------------------------------------------|-----|------|
| 66 | · 누구나 책임지는 입장에 서자 | 홍상월 | 기타 |
| 67 | · 토 하나를 가르쳐도 | 안희순 | 단어 |
| 68 | · 인민학교 학생들의 문장력키우기에서 문장잇기지도 | 홍윤표 | 문장 |
| 69 | · 문법교수에 동화적수법을 받아들여 | 리성희 | 문법 |
| 70 | · 한문교수를 통하여 우리 말 지식을 | 박정화 | 한자 |
| 71 | · 아이들은 가르쳐주기탓 | 김영걸 | 교수법 |
| 72 | · 단어의 발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원리적으로 가르치려면 | 김용환 | 발음 |
| 73 | · 학생들의 나이심리적특성에 맞게 | 김귀월 | 교수법 |
| 74 | · 단어에 대한 표상을 정확히 가지도록 하려면 | 박재규 | 단어 |
| 75 | · 애매한 덧붙이를 잘 가르치자 | 곽순재 | 단어 |
| 76 | · 비유적어휘를 통한 형상력제고 | 안도순 | 어휘 |
| 77 | · 글속에서 문장다듬기 | 손창선 | 문장 |
| 78 | ·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받침글자』와 『받침단어』를 잘 가르치려면 | 류명은 | 규범 |
| 79 | · 글씨쓰기능력을 키워주려면 | 리수향 | 글씨쓰기 |
| 80 | · 인민학교 『국어』에서 본문과 어휘 교육 | 김경희 | 어휘 |
| 81 | · 교수화술의 형상성문제 | 권광찬 | 교사교육 |
| 82 | · 글씨쓰기지도를 과학적으로 하여 학생들을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키운 경험 | 리애경 | 글씨쓰기 |
| 83 | · 어린 학생들의 엉뚱한 생각을 동심에 맞게 표현하기 위한 지도 | 정영일 | 쓰기 |
| 84 | · 언어구사의 능수로 키워주려면 | 김석옹 | 말하기 |
| 85 | · 『술어』하나를 놓고도 | 조철호 | 문장 |
| 86 | ·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마음 뜨겁게 키워간다 | 윤성옥 | 기타 |
| 87 | · 학생들이 제힘으로 글을 써내도록 | 기옥경 | 쓰기 |
| 88 | · 조선어토의 뜻빛갈을 잘 가르치자 | 박성실 | 단어 |
| 89 | · 주격토 『가/이』에 의한 강조형을 똑똑히 알도록 | 정옥희 | 단어 |
| 90 | · 적의 제한을 받는 조선어 명사적단어들을 똑똑히 알도록 | 김성국 | 단어 |
| 91 | · 여러모로 좋은 일기를 잘 쓰려면 | 불명 | 쓰기 |
| 92 | · 인민학교 학생들의 발표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도 | 황규본 | 말하기 |
| 93 | · 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 강춘경 | 기타 |

| | | | |
|----|-------------------------|-----|----|
| 94 | · 수재교육과 교원의 노력 | 윤성옥 | 기타 |
| 95 | · 문법수업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돌리자 | 최영호 | 문법 |
| 96 | · 소설의 묘사글을 어떻게 이해할것인가 | 최영숙 | 읽기 |

〈그림 2〉 90년대 국어교육 영역별 논문수



4) 2000년대(2002년 이후)

이 시기 게재된 논문은 총 59편인데 문법교육 관련 논문 31편(52.5%), 기능교육 관련 논문 10편(16.9%), 교수법 관련 논문 7편(11.9%), 교사교육 관련 논문 2편(3.4%), 외국어교육 관련 논문 2편(3.4%), 기타 논문 7편(11.9%)로 집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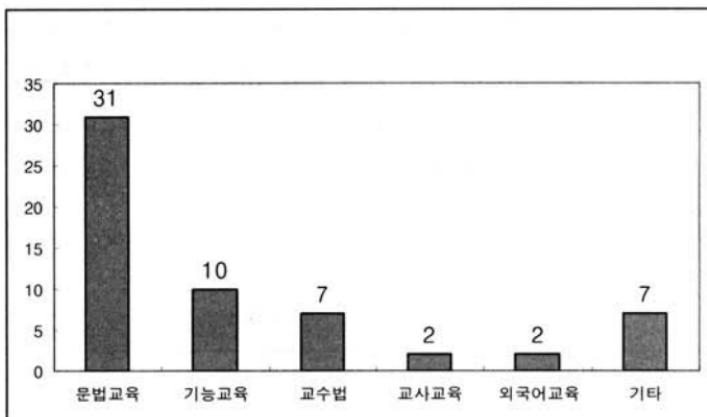
〈표 4〉 2000년대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국어교육 관련 논문

| 순서 | 제 목 | 저 자 | 영 역 |
|----|----------------------------------------|-----|------|
| 1 | · 확대문과 그에 대한 지도 | 한경남 | 문장 |
| 2 | · 어휘의미적련관과 언어교육 | 박혜영 | 어휘 |
| 3 | · 학생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정확한 해답을 주는 기 풍을 세우자 | 백운혁 | 교사교육 |

| | | | |
|----|-----------------------------------|------|--------|
| 4 | · 토《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정확히 인식시키자면 | 로명희 | 단어 |
| 5 | · 국어수업에서 어휘표현풀이를 어떻게 가르칠것인가 | 김현숙 | 어휘 |
| 6 | · 한문교수에서 소리같은말을 통한 어휘가르치기 | 조복동 | 어휘 |
| 7 | · 우리말 교육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한다 | 정혜숙 | 교수법 |
| 8 | · 일기쓰기를 통한 글짓기지도를 실속 있게 | 김연화 | 쓰기 |
| 9 | · 사투리를 버리고 말을 문화성 있게 하도록 | 리추월 | 어휘 |
| 10 | · 국어과목지도에서 얻은 경험 | 한명호 | 교수법 |
| 11 | · 문화어교육을 잘할때 대한 방식상학이 있었다 | 본사기자 | 교수법 |
| 12 | · 계기를 통해 글감을 찾도록 | 염영남 | 쓰기 |
| 13 | · 강의화술에서 표현력을 높이자면 | 김성희 | 교사교육 |
| 14 | · 띄어쓰기규범을 잘 가르치자면 | 박금룡 | 규범 |
| 15 | · 사투리를 없애고 평양문화어를 바로 쓰도록 하자면 | 하성표 | 어휘 |
| 16 | · 학생들속에서 문화어교육을 짜고 듣다 | 신언우 | 교수법 |
| 17 | · 말하기지도를 짜고 들어 | 김영옥 | 말하기 |
| 18 | · 문화어의 표준발음규범을 잘 지키려면 | 김동찬 | 발음 |
| 19 | · 형용사동의어들을 잘 살려 쓰자 | 안광철 | 어휘 |
| 20 | · 강조토《서》와《써》를 어떻게 가려 쓸것인가 | 지미경 | 단어 |
| 21 | · 글씨를 곱게 쓰도록 | 송명환 | 글씨쓰기 |
| 22 | · 언어학과목교수에서 개념강의의 순차적단계설정방법 | 박금룡 | 교수법 |
| 23 | · 방언에 있는 좋은 말들을 적극 살려 써야 한다 | 하성표 | 어휘 |
| 24 | · 황해남도의 특이한 지명들과 유래 | 안경상 | 기타 |
| 25 | · 영어기원의 외래어규범화사업을 바로 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 | 리영희 | 외국어 교육 |
| 26 | · 고유한 우리말을 적극 살려 쓰도록 | 조성희 | 어휘 |
| 27 | · 우리 말 된소리를 바로 쓰도록 하자 | 김예영 | 발음 |
| 28 | · 뜻을 알고 씁시다 | 김순학 | 어휘 |
| 29 | · 《샛별》과《새별》 | 지영순 | 기타 |
| 30 | · 글에서 속격토《의》가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면 | 김동찬 | 단어 |
| 31 | · 학생들의 글씨쓰기수준을 높이고 있다 | 전병두 | 쓰기 |
| 32 | · 뜻을 알고 씁시다 | 김순학 | 어휘 |
| 33 | · 말을 잘 알아듣도록 하자면 | 김성근 | 듣기 |

| | | | |
|----|----------------------------------------------|-----|--------|
| 34 | · 영조번역에서 풍부한 우리 말 어휘를 적극 활용해쓰자 | 최인숙 | 외국어 교육 |
| 35 | · 어원과 구조를 통한 어휘뜻풀이 | 조성희 | 어휘 |
| 36 | · 말을 알아들을수 있게 똑똑히 하는 습관을 붙여준다 | 민성숙 | 말하기 |
| 37 | · 뜻을 알고 씁시다 | 김순학 | 어휘 |
| 38 | · 우리 말 문법의 기초를 닦아주자면 | 김창운 | 문법 |
| 39 | · 뜻을 알고 씁시다 | 김송실 | 어휘 |
| 40 | · 옳은 방법론을 찾고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 김영련 | 교수법 |
| 41 | ·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말하기지도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였다 | 전인순 | 말하기 |
| 42 | · 말하기지도는 과외에도 | 한명숙 | 말하기 |
| 43 | · 글짓기지도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 조성희 | 쓰기 |
| 44 | · 뜻을 알고 씁시다 | 김송실 | 어휘 |
| 45 | · 맞춤법강의를 잘하자면 | 박금룡 | 규범 |
| 46 | · 문화어의 품사와 토를 가르는 문법적분석능력을 키워주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 강창조 | 단어 |
| 47 | · 단어교수에 리용되는 어휘적련관의 류형 | 장혜경 | 어휘 |
| 48 | · 뜻을 알고 씁시다 | 심송실 | 어휘 |
| 49 | · 말을 규범의 요구에 맞게 하자 | 김영윤 | 말하기 |
| 50 | · 소학교학생들이 사칙산법과 관련한 토를 정확히 쓰게 하자 | 김준녕 | 단어 |
| 51 | · 황해남도 지명이야기 | 안경상 | 기타 |
| 52 | · 지금 전해지고 있는 정음문헌의 류형 | 리동빈 | 기타 |
| 53 | · 유길준과 『대한문전』 | 박영광 | 기타 |
| 54 | · 수『8』 | 권승안 | 기타 |
| 55 | · 고장이름을 어떻게 지을것인가 | 박명훈 | 기타 |
| 56 | · 문장구성에서 규정어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 리기만 | 문장 |
| 57 | · 불완전명사의 개념강의를 귀납적방법으로 | 박금룡 | 단어 |
| 58 | · 고유한 방언어휘나 묻혀있는 방언어휘들을 적극 찾아쓰자 | 하성표 | 어휘 |
| 59 | · 깨우쳐주는 교수에서 문법적간결성과 명료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 | 심용주 | 교수법 |

<그림 3> 2000년대 국어교육 영역별 논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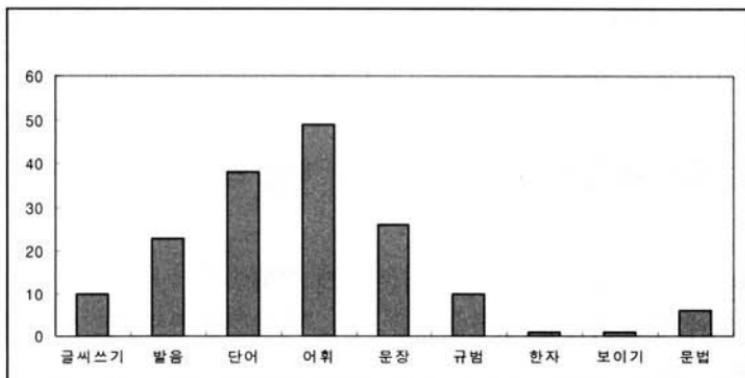
3. 『문화어학습』의 문법 요소별 교수 학습 방법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국어교육 관련 논문 중 문법교육 관련 논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1차적으로 북한의 국어교육에서 문법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2차적으로 북한 문법 교육의 양상을 그나마 많은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기도 한다. 앞서 연구사에서도 밝혔듯이 지금까지의 북한 문법교육에 대한 연구가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한 문법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였다 면 본 논의는 문법교육 관련 논문 자료를 통한 북한 문법 교육 및 문법 교수 학습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문법교육 관련 논문은 총 164편이다. 이러한 논문을 본 논의에서는 다시 글씨쓰기 교육, 발음 교육, 단어 교육, 어휘 교육, 문장 교육, 규범 교육, 한문 교육, 문법전반 관련 논문으로 세분화하여 그 교수 학습 방법적인 측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글씨쓰기 교육 관련 논문이 10편(6.1%),

발음 교육 관련 논문이 23편(14%), 단어 교육 관련 논문이 38편(23.2%), 어휘 교육 관련 논문이 49편(29.9%), 문장 교육 관련 논문이 26편(15.9%), 규범 교육 관련 논문이 10편(6.1%), 한자 교육 관련 논문이 1편(0.6%), 보이기 관련 논문은 1편(0.6%), 문법 전반 관련 논문이 6편(3.7%)을 차지한다. 예상대로 북한의 문법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문법 요소별 논문수



교수 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문화어학습』 1977년 4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깨우쳐주는 교수교양에 대하여 주신 교시(발취)」가 실려 있다.

- (8) 학교교육의 기본 형태는 교수이며 교수의 기본 방법은 깨우쳐주는 교수이다. 깨우쳐 주는 교수는 사회주의 교육의 본성과 인식과정의 합법칙 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수방법이다. 깨우쳐주는 교수수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 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잘하는 것이다. 설명은 생동하고 설득력있고 론리정연하게 하여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깨우쳐주는 교수교양에 대하여 주신 교시(발취)」, 『문화어학습』1977년 3호: 3에서 부분인용)

실제로 『문화어학습』에 게재된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문화어 교육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면 교수 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 '깨우쳐주는 교수법'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구체적으로 문법 전반 관련, 글씨 쓰기 관련, 발음 관련, 어휘 관련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1) 문법교육 전반 관련

전반적인 문법교육과 관련한 논문으로 대표적인 것은 준박사 안옥규 (1985년 1호: 32)의 '문법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와 안옥규(1988년 3 호: 31)의 '문법의 정의, 규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있다.

안옥규(1985년 1호: 32)에서는 문법교수는 첫째로 문법교재의 특성과 문법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학생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쉽게 진행해야 하며 둘째로 문법교재의 특성과 문법 지식의 합법칙성에 맞게 문법 교수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 순차성을 보장해야 하며 셋째로 문법 활용 기능형성의 합법칙성에 맞게 반복과 연습실천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문법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흥미있고 생동한 실례를 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여 줄 것과 하나의 문법적 현상을 놓고도 그것을 열 마디, 백 마디로 설명해줄 것, 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알맞게 문법적 현상들을 풀이해 줄 것, 문법적 현상의 내용에 맞는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법교수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 순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신의 능동적인 사유 활동을 이끌어주면서 이끌기 과정

에 체계성과 순차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이고 생동한 표상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 이미 알고 있는 기초지식에 의거하면서 문제점을 똑바로 설정하고 그 본질과 요점을 집중적으로 깨우쳐주며 한 걸음 한 걸음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데로 이끌어가며 사리정연하고 순차성 있게 일깨워주는 방법을 위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법 활용 기능형성의 합법칙성에 맞게 반복과 연습 실천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법지식을 지식을 위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읽기, 말하기, 글씨쓰기, 글짓기에 이바지하는 교재로서 기량과 숙련을 필수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안옥규(1988년 3호: 31)에서는 고등중학교 문법교재를 가르치는데서 정의, 규칙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는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정의, 규칙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지 않으면 학생들로 하여금 문법적인 개념을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법적 요구를 잘 지킬 수도 없다고 하고 있다. 문법의 정의, 규칙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의, 규칙들을 과학성 있게 설명해야 하며 문법의 정의, 규칙을 과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먼저 문법의 정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정확히 추려내고 그 요소들에 포함된 내용을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정의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정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요소들이 포괄되는 모든 내용들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밝혀준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문법 교수에서 정의, 규칙을 여러 가지 교수수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문법 지식과 문장 능력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글씨쓰기 교육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에서는 특히 저학년에서 글씨쓰기 교육을 특별

히 강조한다. 한글의 기본 획 긋기에서부터 글씨를 바르게 곱게 쓸 것을 강조한다.

아래는 글씨 쓰기 교육에서는 글씨 쓰기 규범에 맞게 글씨를 쓸 것을 강조하면서 글자 쓰기 기준 틀을 제시한 사례이다.

(9) 글씨규범에는 우리 말 자모를 받침있는 글자와 받침없는 글자로 나누어 받침없는 글자쓰기에 맞는 특 6가지, 받침있는 글자쓰기에 맞는 틀 7가지, 이렇게 13개의 글자쓰기기준틀이 나와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해당한 기준틀에 맞추어 어떤어떤 글자들을 쓸수 있다는것을 알려준 다음 그 틀에 맞는 글자쓰기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점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즉

- ① 자음자는 글자의 가로 중심선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놓인다.
- ② 자음자의 높이와 너비의 비는 약 3: 2이다.
- ③ 자음자와 모음자 내리금사이의 간격은 자음자의 너비보다 조금 좁다.
- ④ 모음자 내리금의 길이는 자음자높이의 2배정도이다.
- ⑤ 모음자 ㄱ, ㅋ의 짧은 건너금은 자음자를 기준하여 중간에 긋는다.
- ⑥ 모음자 ㅏ, ㅑ, ㅓ, ㅕ의 짧은 건너금의 길이, 그 사이간격은 내리금길이의 1/4정도이다. (리수향, 1996 2호: 41-42에서 인용)

이 외에도 교수에서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김정일의 교시에 근거하여 다양한 교편물을 이용한 글씨 쓰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리수향(1994, 4호: 36-37)에서는 실제 현장 교사가 직접 제작하고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교편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10) ① 눈자: 이 교편물은 학생들의 글씨쓰기기본자세를 형성시키기 위한

기재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눈과 학습장과의 거리를 30cm, 글쓰는 학생의 눈높이를 10cm, 연필 세우는 각도를 60°로 규정하고 있다. 눈자를 만드는 재료는 합판 또는 가는 막대기를 권장하고 있다.

- ② 자모음쪼각과 쇠칠판: 우리 글은 40개의 자모음자들이 무어져서 하나하나의 글자를 이루지만 매 자모음자들이 그것이 들어가는 모든 글자에서 다 똑같은 모양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모음조각들을 쓰기조절모양수만큼 만들어 그 뒤에 자석을 붙이고 쇠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매 글자의 쓰기규범을 가르쳐주는 교편물이다.
- ③ 글자기준틀: 글씨규범을 매 글자마다 일일이 가르치지 않고 일정한 틀에 맞추어 일반적인 글씨쓰기의 형태를 인식시키기 위한 교편물이다.
- ④ 글자쓰기 련습판: 손가락쓰기판과 연필(뾰족한 물건)로 쓰기 련습판으로 나누어 손가락쓰기에서 초보적으로 익힌 글씨의 쓰기 원리와 규범을 다시 명확히 익히고 정서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시키는 교편물이다.
- ⑤ 학생칠판작업용쓰기판: 많은 학생들이 수업중에 칠판에 나와 배운 글씨를 써보는 경우 매번 도움선을 쳐주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편물이다.
- ⑥ 글씨카드: 학생들의 글씨쓰기 원리와 규범 인식정형을 알기 위한 교편물이다. 한 카드에 한 글자씩 바르게 쓴 것과 틀리게 쓴것을 섞어놓고 학생들이 그 속에서 바르게 쓴것을 찾게 하고 틀리게 쓴 글자의 원인을 밝혀내게 하는 것이다.
- ⑦ 글씨평가판: 학생들이 쓴 글씨를 규범에 따라 평가하여 기록하는 교편물이다. 평가 내용으로는 모양, 자리, 크기가 있다.

첫 번째 자료가 글씨쓰기 규범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이라면 두 번째 자료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규범을 익히고 실제로 글씨를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교편물을 이용한 글씨쓰기 교육의 실제라고 할 수 있

다. 두 번째 자료에서는 학습자들의 글씨쓰기 자세에서부터 연습판 나아가 평가판까지 제시되고 있는데 비교적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글씨쓰기 교육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씨쓰기 교육에서 이외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교사의 모범적인 글씨쓰기를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방하게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교사들에게 비교적 부담이 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글씨쓰기에서 모방을 통한 연습이 효과적임을 강조하는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3) 발음 교육

실제로 『문화어학습』에는 발음 교육과 관련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교수 경험들이 소개되어 있다. 우선 발음 교육과 관련한 김일성 및 김정일 교시에 근거한 발음 교육 철학들이 드러난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11)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말은 높고 낮음과 길고 짧음이 잘 어울리고 거기에 억양이 조화되어 매우 아름답게 들립니다. (중략) 발음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원들은 무엇보다 먼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 문화어의 정확한 표준발음법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발음지도 방법을 깊이 연구하여 교수활동에 써 먹어야 합니다.(리달선, 1970 3호: 23)
- (12) 발음지도에서도 다른 모든 교수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일무장투쟁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손수 모범을 보여주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리금영, 1972년 3호: 22)
- (11)에서는 우리 말소리의 우수성과 함께 발음 교육의 중요성 및 발음

지도 방법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12)에서는 발음 지도 방법으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깨우쳐 주는 교수 방법이란 즉 말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 단어나 문장 속에서 말 소리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치와 원리를 학습자들에 깨우쳐주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발음 교육에서 개별 자모음들은 단어 속에서 그 말소리 그대로만 발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 속에서의 발음지도를 강조하는데 단어의 발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원리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준박사 김용환(1995 4호: 39-40)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①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생겨난 무슨 변화현상인가를 알도록 해야 한다.

② 발음변화는 한 단어에 한가지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다 밝혀야 하며 밝히되 순차별로 밝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꽃잎같이》와 같은 단어발음의 변화현상을 아래의 6가지로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13) a. [꼰잎같이] (ㅊ-ㄷ) 막힘소리되기
- b. [꼰닢같이] (령-ㄴ) ㄴ소리끼우기
- c. [꼰닢같이] (ㄷ-ㄴ) 코안소리되기
- d. [꼰닙같이] (ㅍ-ㅂ) 막힘소리되기
- e. [꼰닙같이] (ㄱ-ㄲ) 된소리되기
- f. [꼰닙까치] (ㅌ-ㅊ) 입천장소리되기

③ 다음으로 발음변화의 진행 범위를 밝혀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발음 변화현상은 같은 어음론적 조건을 가진 모든 단어에서 다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④ 단어의 발음변화 교육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해당한 사례를 많이 들어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게 하는 것이다.

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말소리변화 일람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5〉 말소리 변화 일람표

| 발음변화의 종류 | 발음변화의 내용 및 결과 | 발음변화의 원인 | 발음변화의 진행범위 | 례 |
|----------|-------------------------|--------------------------|------------|------------------------------------|
| 코안소리 되기 | 막힘받침소리→코안소리 | 뒤에 있는 올림소리의 영향 | 절대적 | 혁명, 부엌문, 깎는다. 맘누이, 끝머리, 밥물, 입말, 앞날 |
| 앞모음되기 | 뒤모음→앞모음 | 뒤에 있는 끝모음 ㅣ의 영향 | 제한적 | 강냉이, 지팽이, 에니, 누데기, 무데기, 오이→외 |
| ㄹ소리 되기 | ㄴ→ㄹ | 옆에 있는 ㄹ의 영향, 옆에 있는 ㄴ의 영향 | 절대적, 제한적 | 관리, 권리, 천리마, 별나라, 칼날, 곤난, 한나산 |
| 입천장소리 되기 | ㄷ,ㅌ→ㅈ,ㅊ | 뒤에 있는 끝모음 ㅣ의 영향 | 절대적 | 곧이, 만이, 미단이, 같이, 끌이, 쇠붙이 |
| 된소리되기 | 순한소리→된소리 | 앞에 있는 올림받침소리의 영향 | 제한적 | 손길, 일당백, 봄미, 당성, 열정, 발전 |
| ㄴ소리끼우기 | 령→첫소리ㄴ | 형태부를 발음상으로 구획지으려는 요구 | 절대적 | 앞일, 앞이마, 헛일, 짓이기다, 꽂잎, 홀이불 |
| ㄷ소리끼우기 | 령→받침소리ㄷ | 형태부를 발음상으로 구획지으려는 요구 | 제한적 | 해빛, 해발, 기발, 회불, 주대, 배전 |
| 모음빠지기 | 모음→령 | 발음을 간편히 하려는 요구 | 제한적 | 마음→맘, 슬기로운→슬기론 |
| 자음빠지기 | 자음→령 | 약한 자리에 놓인 데 | 절대적 | 값, 넋, 꽈, 앉다, 훑다, 감히, 혼히, 일흔 |
| 모음줄이기 | 일정한 수의 모음→보다 적은 소의 딴 모음 | 발음 간편히 하려는 요구 | 제한적 | 아이→애, 사이→새, 주어→쥐, 보이다→보다 |

| | | | | |
|--------|------------------|--------------|-----|----------------------------|
| 거센소리되기 | 순한소리→거센소리 | 옆에 있는 ㅎ와의 결합 | 절대적 | 축하, 박해, 특효, 입학, 작황, 급히, 잡화 |
| 막힘소리되기 | 울림소리아닌 반침자음→반침소리 | 약한 자리에 놓인데 | 절대적 | 앞, 잎, 꽃, 밭, 낫, 붓, 부엌, 낚시 |

4) 어휘 교육

앞의 통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학교 문법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저급 학년, 유치원 및 인민학교에서의 어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유치원에서의 어휘 교육

어린이들에게 어휘를 가르친다는 것은 해당 어휘의 뜻을 잘 알려주고 그 말소리를 정확하게 내게 하며 해당 어휘의 쓰임을 잘 알고 그것을 옳게 활용할 줄 알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기초 어휘 교육을 잘하여야 어린이들이 풍부한 우리 말을 잘 알고 옳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표상을 정확히 가지고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울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리성희(1986년 2호: 36)에서는 어휘 교육의 위와 같은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여 언급하면서 유치원 어휘 교육의 초점은 일상생활과 관련한 어휘로부터 점차 학교 교육에 필요한 어휘, 사회 정치 생활과 관련된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줌으로써 해당 어휘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사물 현상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어휘 교육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물 현상을 직접 보여주는 보이기 학습 방법과 성질이나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것, 반대되는 것과의 대비를 통한 대비 방법 및 고립된 어휘가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문장 속에서 어휘의 뜻을 이해시키는 방법, 기초 어휘의 범위를 넓혀 주면서 그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들고 있다.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유치원 어휘 지도에서 강조하는 것이 보여주기 즉 직관 교육, 실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리준무(1979년 1호: 26)에서는 유치원 어휘 지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관물로 그림을 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흥미 있고 생동하게 원리적으로 어휘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직관물과 실물을 보여주기를 통한 어휘 지도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 교사가 지나치게 보여주기 자체에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학습자들을 충분히 이끌지 못하여 보여주기의 초점이 어휘 교육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거나 하는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가 직관물이나 실물을 충분히 이해할 것과 보여주기와 설명을 적절하게 결합 할 것을 권유한다.

② 인민학교에서의 어휘 교육

조선어에 대한 학교 교육에서 첫 공정은 인민학교 교육이며 인민학교 국어 교육에서 기본은 어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민학교는 정규 교육의 첫 걸음을 뗀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어휘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조선어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북한의 인민학교 어휘 교육의 철학이다.

김경희(1996년 3호: 3-36)에서는 인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목적 지향성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결정적으로 국어 과목의 본문이 바로 짜여 지고 그에 대한 교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국어 과목에 들어가는 어휘 유형과 어휘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말을 교육학적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배우는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어휘를 얼마나 배우게 하며 그것을 단계

적으로 얼마만큼씩 늘여갈 것인가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결정되어야지만 인민학교에서 효과적인 어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경희(1996년 3호: 3-36)에서 국어 교재에서의 어휘 선택과 어휘량에 대한 원리를 제시했다면 홍윤표(1986년 3호: 31)에서는 인민학교에서 어휘의 의미를 가르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민학교에서 어휘의 의미를 쉽게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어휘의 의미를 학생들이 잘 알고 늘 쓰는 쉬운 말로 풀이 해주는 방법,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어휘 습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풀이해 주는 방법,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 현상, 상태, 동작, 표정 등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인민학교 학생들의 학년별 지적 수준에 맞게 여러 가지 교수 수법을 적절히 적용하여 어휘를 정확히 알고 바로 쓰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IV. 결론

기존의 북한의 문법 교육 연구는 주로 북한의 『국어』 교과서 및 『국어 문법』 교과서의 문법 내용 분석 및 남한 『문법』 교과서와의 비교가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과서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자료들은 북한의 문법 교육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지만 현재 찾아 볼 수 있는 교과서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기존의 교과서 분석의 틀이 아닌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의 문법 교육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문화어학습』의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란에 게

재된 문법 교육 관련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게재된 논문들은 우선 현장 교사들이 직접 가르치면서 쌓은 교수 경험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며 최근까지 출간된 『문화어학습』을 시대별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대별 북한 문법 교육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북한의 학교 문법의 배경을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최근까지의 『문화어학습』의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에 게재된 국어교육 관련 논문들을 문법교육 관련, 기능교육 관련, 교수법 관련, 교사교육 관련, 문학교육 관련, 외국어교육 관련, 기타 교육 관련 논문으로 분류하여 문법교육의 비중을 살폈으며 문법교육 관련 논문을 다시 문법교육 전반 관련, 글씨쓰기 교육 관련, 발음 교육 관련, 단어 교육 관련, 어휘 교육 관련, 문장 교육 관련, 규범 교육 관련, 한자 교육 관련 보이기 관련 논문으로 나누어 각 문법 영역별 교육 비중을 살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어 교육에서 문법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법교육 중에서는 어휘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문법 영역별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로 게재된 논문들 중 대표적인 논문을 참고하여 지도 방법, 걸그림 등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 자료를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되도록 70년대에서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자료를 살펴보려고 했으나 연구자의 연구 능력의 한계로 70년대 자료가 일부 누락되고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모든 문법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 그리고 더욱 많은 논문 자료를 사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본 논의에서 빠진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 이 논문은 2010. 4. 30. 투고되었으며, 2010. 5. 17. 심사가 시작되어 2010. 5. 28.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0. 6. 1.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다.

참고 문헌

1. 자료

- 『문화어학습』 1970년 2호, 3호, 4호
『문화어학습』 1971년 2호
『문화어학습』 1979년 1호, 2호, 3호, 4호
『문화어학습』 1980년 1,2,3,4호 ~ 1989년 1,2,3,4호
『문화어학습』 1990년 1,2,3,4호 ~ 1999년 1,2,3,4호
『문화어학습』 2000년 1,2,3,4호 ~ 최근 호

2. 단행본 및 논문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영근 외(2004),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 박이정.
김계숙(1980), 『북한 교육의 분석』, 대제각.
김남돈(2003), 『북한 문법 이론의 발전 과정』, 한국문화사.
김민수(1997), 『김정일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김영황 · 권승모(2000),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박이정.
남승립(2001), 「남북한의 문법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은주(1994),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정희(2004). 「남북한 학교 문법 비교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인재(1996),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인재 외(2000), 『남북한 초 · 중등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평가원.
조중행(2001), 「남북한 학교 문법 비교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용기(2003),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박이정.
최현섭 외(1999), 『남 · 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역락.
하치근(1993), 『남북한 문법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 국문초록

『문화어학습』으로 본 북한의 문법 교육

최영란

본고에서는 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최근까지의 『문화어학습』의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란에 게재된 국어교육 관련 논문들을 문법교육 관련, 기능교육 관련, 교수법 관련, 교사교육 관련, 문학교육 관련, 외국어교육 관련, 기타 교육 관련 논문으로 분류하여 문법교육의 비중을 살폈으며 문법교육 관련 논문을 다시 문법교육 전반 관련, 글씨쓰기 교육 관련, 발음 교육 관련, 단어 교육 관련, 어휘 교육 관련, 문장 교육 관련, 규범 교육 관련, 한자 교육 관련 논문으로 나누어 각 문법 영역별 교육 비중을 살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어 교육에서 문법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법교육 중에서는 어휘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문법 영역별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로 게재된 논문들 중 대표적인 논문을 참고하여 지도 방법, 결그림 등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 자료를 제시했다.

따라서 본 논의는 북한의 교과서가 아닌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의 문법 교육 양상을 시대별로, 문법요소별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북한의 국어교육, 북한의 문법교육, 문화어학습, 학교에서의 문화어 학습, 문법 교수학습 방법

■ Abstract

A study on grammar education of North Korea in view of 『Culture Language Learning』

Cui, YingLan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grammar education is investigated by classifying the theses,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the section of 'Culture Language Education at school' of the 『Culture Language Learning』 from 1970s to the recent 2000s, into the related parts of grammar education, functional education, teaching method, teacher education, literature educa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The importance of grammar education sorted by each grammatical section is also investigated by classifying the theses into the related parts of general grammar education, writing education, pronunciation education, word education, vocabulary education, sentence education, normative grammar education, and Chinese character education.

In conclusion, the grammar education turned out to be most important par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North Korea and vocabulary education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part in grammar education. Finally, with reference to the typical theses dealing with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orted by grammatical sections, some materials about specific teaching-learning methodology such as teaching method and wall map are suggested.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on the point that it has investigated the aspects of Grammar Education of North Korea by different periods and grammatical factors, not just by using textbooks of North Korea.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North Korea, Grammar Education in North Korea, Culture Language Learning, Culture Language Learning at schoo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Grammar Education